



코스피 2326.17 (-27.63)	코스닥 848.24 (+6.94)
금리 (무조건 0%) 0.940 (+0.047)	환율 (원/달러) 1187.80 (+3.50) (8.31)



[뉴스]
금강·경주대 등 13곳
부실대학 지정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
02

이동통신사가 제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비대면) 거래가 강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이동통신사 역할에서 벗어나 다각도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탈(脫)통신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통신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미디어, 금융, 게임, 클라우드 등으로 협력을 맺고, 사업을 가속화 해 종합 정보통신기업(ICT)으로 거듭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메트로경제>는 이동통신사의 탈통신 행보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구현모 KT 대표가 'AI원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KT

IT·금융사 손잡고 AI 선점 합종연횡

탈통신 시대

1 통신사가 이끄는 AI 동맹

이통사, 다른업체와 협력 가속화
KT, 산학연 손잡고 AI원팀 출범
스마트선박·제조·로봇·가전 등
다양산 산업영역서 시너지 기대

“AI를 잡아라.”

인공지능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서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해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진정한 의미의 AI로 발전하고 있다. 그간 AI가 인간이 만든 지식을 기계에게 주입시켰다면, 최근에는 '생각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제공해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배우는 AI 시대로 접어들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향후 20년간 인공지능 기술이 마케팅·영업, 공급사슬 관리,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운영, 재무·IT 등 경영 전반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신사의 경우 그간 쌓아온 빅데이터와 5세대(5G) 이동통신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AI 분야 선점을 위해 업종을 뛰어넘고 'AI 동맹'을 맺으며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도 'IT 강국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혼자는 어려워'... 'AI 원팀'으로 가전·제조·로봇 시너지

AI 시대를 이끌기 위한 'AI 동맹'이 통신사를 필두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중공업, IT 기업,

금융사 등 다른 특징을 지닌 업체들간 '합종연횡'이 AI 시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 2월 KT가 꾸린 'AI 원팀'은 AI 사업 주도권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첫 시작은 현대중공업 그룹, 카이스트,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함께 결성했고, 6월에는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합류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합류했다.

AI 원팀은 ICT뿐 아니라 스마트선박, 제조, 로봇, 스마트가전,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가령 LG전자는 서울을 비롯해 실리콘밸리(미국), 토론토(캐나다) 등 전세계 5개 지역에 AI 연구개발 거점을 두고 있어 이에 따른 AI 원팀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의 AI 플랫폼 '기가지니'와 LG전자 'LG씽큐'의 연동, 대화 확대 등과 함께 KT와 LG유플러스의 홈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와 LG전자 가전도 연동할 방침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AI와 5G시대에 KT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망과 ICT기술, AI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삶과 타 산업의 혁신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AI 원팀을 통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KT는 자사 내 얼라이언스 사무국도 설치 운영했다. 얼라이언스 사무국은 참여기관 간 협력과 결과물 도출, 확산에 힘을 실어 예정이다.

<3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SK그룹 지배구조 개선 '신의 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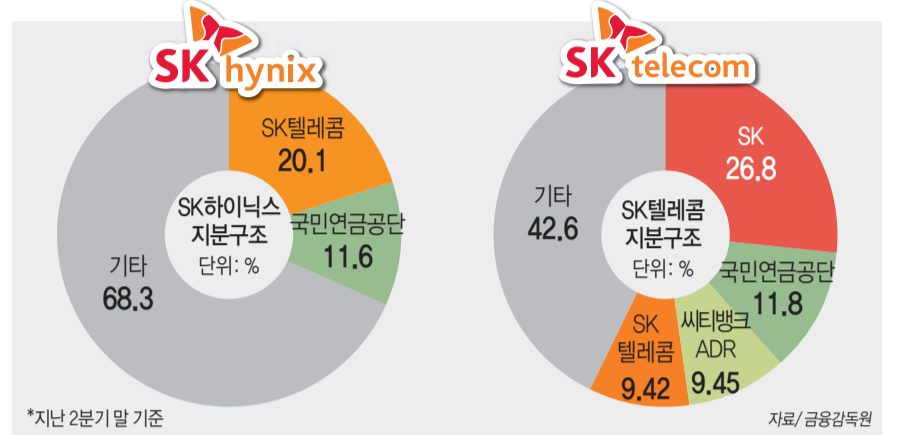
SKT, 50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텔레콤, 중간지주사 승격 땀
SK하이닉스 공격투자 가능

SK텔레콤의 자사주 매입(5000억원 규모) 발표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사전작업으로 해석되면서 SK하이닉스의 변화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분할(물적·인적)을 통해 중간지주사가 되면 SK하이닉스의 지위도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격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난다면 최근 오름세를 탄 SK텔레콤에 이어 SK와 SK하이닉스 역시 주가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내에서 최대 현금창출력을 가진 회사다. 그룹 소속 계열사 118곳 중 압도적인 1위다.

31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계열사 전체 118곳 총자산(214조6400억원) 중 SK하이닉스가 28.06%를 차지했다. 매출액 역시 40조3200억원 수준으로 계열사 전체 매출액(183조5600억원)의 21.97%를 기록했다. 통신·에너지와 함께 그룹 3대 핵심사업으로 꼽혔으나 이전 압도적인 1



강이다. SK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주사인 SK가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팜 등을 자회사로 두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와 SK플래닛, ADT캡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출범한 2012년 이후 SK텔레콤이 변동 없이 지분 20.7%의 지분을 유지하며 최대주주 자리를 지켜왔다. SK텔레콤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그룹 지주사 SK가 26.78%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즉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이러한 손자회사 위치가 '족쇄'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지위에 있는 기업은

인수·합병(M&A)을 할 때 피인수 기업의 지분 100%를 사들여야 한다.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힘들다.

그런데 SK텔레콤이 자사주매입을 통해 그룹의 중간지주사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분할방식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지위도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격상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28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전체 주식수의 2.5% 규모로 내년 8월 27일까지 계약 기간이 책정됐으나 SK텔레콤이 올해 초부터 자사주 매입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만큼 연내에 작업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2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



태풍 복상에 대비한 요트들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CK)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인 31일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관계자들이 크레인을 동원해 요트를 지상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發 고용 충격, 과거 위기의 5배”

한은 '코로나19 노동시장 충격' 근로시간 감소, 평균대비 5배 ↑ 업종·원인 별 차별화 대응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비자발적 실업자가 양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등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박창현 과장의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수요·공급 충격 측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추정해 결과, 부정적인 노동 수요·공급 충격이 모두 크게 나타나면서 노동투입(총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 수요 충격은 기업 고용의 감소, 공급 충격은 가계의 구직 활동 축소를 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은 노동 수요와 공급 전방위로 파급됐다.

총근로시간(월평균) 감소에 대한 노동 수요충격의 기여도는 올해 3~4월 중 평균 -0.53%포인트다. 지난 2015~2019년 중 부정적 충격의 평균치 -0.10%포인트의 5배를 웃돈다. 과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해도 근로시간이 1만 줄었다면 이번 코로나19로는 5만급 줄

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동공급충격의 기여도는 -1.22%포인트로 과거 평균치 -0.56%포인트의 두 배 안팎을 기록했다.

박 과장은 "특히 두 가지 충격 중 부정적인 노동수요충격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된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며, 총근로시간의 충격 반응을 보면 노동 수요충격의 영향이 노동공급충격에 비해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4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